

해남군 교육재단 출범... 장학사업·평생교육 전담

운영국장 총괄 3개팀 10명 구성... 군민 체감 교육서비스 지원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32년까지 기금 500억 조성

해남군의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등을 전담할 교육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해남군은 최근 평생학습관에서 해남군 교육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재단 이사장을 맡은 명현관 군수와 운영감 국회의원,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조영천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사무국을 총괄할 운영국장과 3개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남군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원이 파견돼 민·관·학 업무협업을 하게 된다.

해남군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육전담기관인 교육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교육재단 설립은 민선7·8기 군 중점과제로, 지난해 12월 창립이사회를 거쳐 올 2월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을 비전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확대, 각종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개발·추진, 군민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 등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또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남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입학 학생 300여 명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30만원씩을 지급했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존 100억여원의 기금을 포함해 121억여원의 장학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해남군은 교육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비 및 운영비 외에 매년 30억원씩 출연해 2032년까지 5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사장을 맡은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한 교육재단 설립이 많은 이들의 염원을 모아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포함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해남군만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명현관 해남군수 등 해남군 교육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7일 해남군 교육재단 출범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목포시 '사랑의 밥차' 재개 어르신 8400명에 점심 제공

급식봉사·재능기부 등 운영 9월 12일부터 하반기 운영 시작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한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최근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 재개된 '사랑의 밥차'는 상반기 동안 14차례 운영해 840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사진>

사랑의 밥차 운영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힘이 컸다.

총 56개 봉사단체, 600여 명의 급식 봉사자들이 참여해 배식을 도왔으며, 10개 단체 130여 명의 재능기부 봉사자가 한데 힘을 모아 이·미용봉사, 건강체조, 국악,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런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밥차는 단순히 식사 제공만이 아닌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됐다.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한 따뜻한 기부도 이어졌다. 양경숙 목포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5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목포수협 김정룡 조합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목포지회 등 여러 단체들이 다양



한 물품을 릴레이로 기부했다.

목포시의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지난 2013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밥차를 기증받은 이후 매년 운영예산을 후원받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휴한기와 휴서기를 제외한 8개월 동안 매주 화

요일 따뜻한 점심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점심 한 끼와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왔다.

사랑의 밥차는 휴서기인 7-8월 중단했다가 오는 9월 12일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군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률 전남 1위

4935억원 중 65% 3221억원 집행

해남군이 202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에서 전남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의 재정집행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935억원 중 3221억원을 집행해 65.3%의 집행률로 전남 22개 시군 중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923억원 대비 2486억원을 초과 집행, 129.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군은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위해 부서 자체 점검회의·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금·기성금 지급으로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해남군 지방재정은 2019년부터 지방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지난해 1조 3217억원을 운용해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다.

예산 집행률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85.8%까지 높아지면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도기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도자기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도기박물관 도기 자석 만들기 프로그램

7~9월 초·중·고교생 대상 운영

영암도기박물관이 '도자, 그림을 그리다' 특별전과 연계해 7~9월 초·중·고등학생 도기 자석 만들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기로 알아보는 영암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영암 구림도기와 흥미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고 표현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영암도기박물관은 학생들을 위해 구림도기, 벚꽃, 남생이, 등산, 큰바위얼굴 등 다양한 영암의 이미지 그림이 그려진 도기 입형 자석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이 도기 자석 표면에 색을 칠하며 영암의 역사·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스스로 만든 도기 자석은 가정으로 가져가 일상

생활에서 쓰며 영암 도기, 이미지와 가깝게 지내게 된다.

영암은 처음으로 유약을 바른 시유도기의 원조다. 영암에서 출토된 구림도기는 8~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유도기로, 당시의 창조적 사고와 첨단 기술이 만나 일궈낸 혁신품으로 통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살릴 수 있는 상설전시실, 전통도기를 집대성한 김대환 기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원 도자기를 2차원 캔버스로 활용해 회화적 요소가 가미된 혁신적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뇌 튼튼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호응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위한 심터 프로그램 '소중한 나의 기억'과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뇌 튼튼 치매 예방교실', '두툼치 치매 예방교실' 등이 있다.

치매 환자 심터 프로그램인 '소중한 나의 기억'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의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색칠 북 교육 ▲짜짜락 마음 돌봄 교육 ▲손자극을 위한 만들기 수업 ▲근력 증진을 위한 실버 홀라덴 등으로 이뤄졌다.

'뇌 튼튼 치매 예방교실'과 '두툼치 치매 예방교실'은 주 1회, 치매 발생 요인을 줄이고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치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을 위해 '헤아림' 가족교실, '어울림'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올바른 치매 환자 돌봄 정보와 휴식도 제공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님을 인지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kwangju.co.kr



영산강사업단 영암·금호호 수질환경보전회의

어업계 참석 오염물질 저감 논의

영암호와 금호호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자치단체, 지역 어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6일 자치단체, 지역단체와 함께 수질환경보전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회의에는 영산강사업단과 영암군·해남군, 영암호 어업공동체, 금호호 내수면 어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수질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방제훈련과 환경정화활동 추진 현황·향후 계획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담수호와 간척지 내 오염물질 저감 방안과 담수호 페어망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운영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영암군, 해남군 일대에 용수공급 수단과 어업자원으로 활용되는 영암호, 금호호의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 지역민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무안군 청년 활동비 지원 참여자 20명 모집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무안군이 2023년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활동과 관련된 제품 홍보비, 자문비, 개발비 등 간접 사업비를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

인 19~45세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사업비는 본인이 활동비를 선 지출한 후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지출 증빙 등을 제출하면 심사해 계좌로 입금되며, 자산성 물품구매나 공공요금 및 사무실 임대료 유흥비, 레저비용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청년AI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무안=김준민 기자 jun@kwangju.co.kr

세일글

"화합·소통으로 1004섬 발전 힘 모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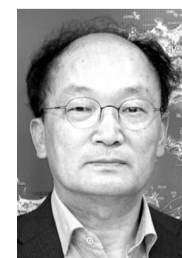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신안 1004섬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신안군 부군수에 최근 부임한 김재광 부군수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부군수는 "신안군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신안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쌓아온 모든 노력을 동원해 미약하나마 신안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군수는 '숲속의 전남' '남도 치유의 숲' 조



성 계획 등을 세운 산림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15년에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부군수는 순천대학교 임학과에서 공부하고 전남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지방임업기원보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장 등을 지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kwangju.co.kr